

보도시점 2025. 8. 5.(화) 11:00
8. 6.(수) 조간

배포 2025. 8. 5.(화) 09:00

농관원·농과원 손잡고 국산 밀
붉은곰팡이병 예방체계 구축

- 기관 간 협력으로 기후 변화 대응을 통한 밀 안전성 확보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원장 박순연, 이하 농관원)은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수확기 국산 밀 292점을 대상으로 곰팡이독소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,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.

2023년과 2024년에는 봄철 고온, 집중 호우 등 빈번한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해 밀 붉은곰팡이병이 확산되었다. 병이 발생할 경우 곰팡이독소로 인해 밀 안전성은 물론 수확한 밀의 부적합 폐기 조치 등으로 농가 피해도 우려되었다.

* 밀 붉은곰팡이병 예찰 결과(농촌진흥청): ('23) 3.8%, ('24) 21.4%, ('25) 1.2%
밀 곰팡이독소 부적합 발생 건수(농관원): ('23) 23건, ('24) 1건, ('25) 0건

이에 농관원과 국립농업과학원은 안전관리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부터 공동으로 밀 안전성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. 올해는 붉은곰팡이병 방제 적기인 밀 출수·개화기 전에 현장 지도·교육 등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수행하였다.

* 공동 현장 지도·교육(3~5월, 2,300여 명) 및 소책자 제작·배부(2월, 1만 부)

아울러 농관원은 기존의 수확 후 안전성 조사 방식을 보완하여 수확 전 단계에서 밀 생산단지 및 재배농가를 조사하고, 수확 후 부적합 우려 단지에 대해 추가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예방적 관리를 수행하였다.

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“기관 간 협력으로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밀의 안전성을 확보한 사례”라며 “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농업인과 함께 예방적 관리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	책임자	과 장	김종필 (054-429-4131)
	소비안전과	담당자	사무관	김재곤 (054-429-4132)
	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	책임자	과 장	이세원 (063-238-3391)
	식물병방제과	담당자	연구사	장자영 (063-238-3399)
	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	책임자	과 장	박향미 (063-238-5330)
	작물환경과	담당자	연구사	양정옥 (063-238-5349)